

# “나주배 과수화상병 막자” 방역 총력

### 시, 내년 3월까지 선제 대응 농가 약제 지원·방제교육 등

나주시가 국내 최대 배 생산지 나주에 과수화상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방역망 구축과 농가 방제교육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3개월간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와 약제 배부 대상 농가 파악 등 전수조사를 마쳤다.

과수화상병은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잎과 줄기, 열매가 까맣게 말라죽는 병이다. 마땅한 치료약이 없고 전염력이 강해 조기 방제를 통한 예방만이 최선이다.

올해 전국 피해면적은 전년 대비 약 1.5배 증가한 626농가 330ha에 달하고, 충북·경기·충남·강원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다.

배 생산지인 나주에서 화상병 발생 시 농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극심한 타격이 우려된다.

올해는 전북 익산 사과농장에서 병이 발생하는 등 전연세가 남하하고 있어 지역농가의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나주시는 빈틈없는 방역망 구축을 위해 내년 3월 전제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예방 약제, 전정도구 소독제를 지원한다. 홍보전단 배부하고 포스터 부착



나주시가 국내 최대 배 생산지 나주에 과수화상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제 교육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나주시 제공>

하는 등 농가 경각심도 높일 계획이다. 5월부터 7월까지는 농가 예방반을 편성해 정기예찰 강화 등 화상병 유입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과수 농가도 정결한 과원 관리를 비롯해 과수원 출입시 인력·장비 수시 소독, 오염되지 않은 묘목 사용, 잔재물 이동 금지, 과원 내 외부인 무단출입 제한, 야생 동물 접근 차단 등에 힘써야 한다.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예방은 겨울철 정기 전정시기인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농가에서는 정기 예찰과 주의사항 실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정 도구 및 농기구 소독, 가지치기 등으로 발생한 가지 잔재물의 매물 처리와 발병 시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 유두석 장성군수 ‘농업대상’ 최우수상 수상



유두석(사진) 장성군수가 지난 9일 ‘제2회 대한민국 농업대상’ 지방농정 분야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장상을 수상했다.

소득작목 집중 육성과 푸드플랜 사업 강화를 통해 올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유 군수는 황금사과, 사인머스켓 등 지역 농업환경에 적합한 소득작목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또 농업인 전문교육과 청년 농업인, 귀농 육성정책 확대 등도 높이 평가됐다. 지역 푸드플랜 사업 강화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한 것도 수상의 밑거름이 됐다.

유 군수는 “장성은 전남지역 농업발전을 이끄는 선도 지자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소득 향상과 직결된 사업을 강화하고 틈새 소득작목을 발굴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농업대상은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농업인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 지자체장, 공무원, 농산업 관계자를 발굴, 공유하기 위해 제정됐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담양 대전면 주민들은 10일 담양군청 앞에서 한솔페이퍼텍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위법행위 많은 담양 한솔페이퍼텍 이전하라”

### 대전면 주민들 시위

담양군 대전면 주민들이 10일 담양군청 앞에서 한솔페이퍼텍(주)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이날 집회를 열고 “골판지 제조업체인 한솔페이퍼텍은 50여건이 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조속한 이전을 촉구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한솔페이퍼텍은 도로로 사용하던 국유재산에 무단 점유했고 회사 정문 옆 국유지도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담양군에 적발돼 원상

복구 중이다.

또 건축물과 관련하여도 3차례에 걸쳐 54건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주민들은 담양군에 한솔페이퍼텍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한솔페이퍼텍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주민들과 소음 등 환경분쟁을 겪고 있다. 또 위법사항 13건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 나눔 세상 온정의 손길

## ‘부전자전’ 화순 임형노씨 부자 20년째 기부

화순에서 20년째 손수 재배한 농산물을 기탁하며 세밀 나눔을 실천하는 부자(父子)가 있다. 주인공은 화순군 이양면 임형노(70)씨 부자.

10일 화순군에 따르면 임씨의 아들 규복(42)씨가 최근 이양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쌀(20kg 들이) 40포와 라면 50박스를 전달했다. <사진>

이양면에서 농사를 짓는 임씨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나눔을 실천했다. 아버지 임형

노씨는 지난 20여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기탁해 왔다.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정성을 모으겠다는 마음에서였다.

올해부터는 아들이 그 뜻을 이어간다. 이양면 행정복지센터는 기탁받은 쌀과 라면을 코로나 19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이웃 90가구에 전달했다.

임규복씨는 “그동안 아버지께서 어려운 이웃



을 돕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대신해 나눔을 이어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임형근 이양면장은 “농작물 작황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아낌없이 나눔을 실천해 준 임형노씨 부자에게 감사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 ‘십시일반’ 장흥군 대덕어린이집 원생·학부모 성금

장흥 대덕어린이집은 원생과 학부모들이 이웃 돕기 성금 50만원을 대덕읍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대덕어린이집 학부모와 원생들은 장난감과 옷, 책 등을 모아 바자회를 열고, 수익금 50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다.

김숙자 대덕어린이집 원장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마음을 전하고자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kykim@kwangju.co.kr



## ‘인지상정’ 담양군 자율방범연합회 동치미 120상자

담양군은 새마을방범연합회가 최근 직접 담근 동치미 120상자를 전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자율방범연합회 회원들은 여름부터 정성껏 가꾼 무와 채소류로 직접 동치미를 담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12개 읍면에 각 10상자씩 총 120상자를 전달했다.

전체우자율방범연합회장은 “홀로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정감이 넘치는 동치미로 따뜻한 정을 느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범활동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 자연정화활동 등 꾸준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

# 광주 군 공항 이전!

## 이전 지역 주민이 직접 결정합니다!

주민 의견 반영한 지원계획 수립 → 주민 투표 실시 → 지자체장 유치 신청

## 군 공항 들어서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원 사업 (4,500억 원)으로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 군 공항 건설 시 지역업체 참여 및 주민 고용 통해 생산·취업 유발
- 이전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은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 군부대 주둔으로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 경제 활성화
  - 군부대 인원 (2,500여 명) + 동반가족 / 외출·외박 확대 시행 (21,000여건), 2018년 기준.